

## 임프란트를 이용한 하악 무치악 환자의 치료

임희숙, 박주미, 안승근, 송광엽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치아 발거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 악골 퇴축이 심해져서 의치의 안정성, 유지력, 지지력이 상실되므로 심하게 흡수된 치조골을 가진 무치악 환자를 보철 치료로 수복할 경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완전 무치악 환자를 총의치로써 수복해 주는 경우 잔존치조골이 저작압에 견디기 불리하고, 의치 장착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치조골의 높이가 점차 감소하게 되어 연조직에 대한 자극으로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 및 부적절한 저작기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치과 임프란트의 보급과 기타 사용재료의 개선등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에 많은 진전을 보게 되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 있어서 임프란트 보철은 크게 bony anchored fixed bridge와 overdenture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성 보철의 경우 심리적 안정감, 자연치에 가까운 저작 기능의 개선등의 장점이 있으며 그 효율성이나 안정성이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져 왔으나 발음과 심미성의 결여, 불완전한 안면 연조직지지, 높은 치료비와 술식의 복잡함, 구강위생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implant overdenture는 치조골 흡수가 심한 경우 안면지지 능력이 뛰어나며 치료비용이 저렴하고 보철 치료 과정이 간단하며 대합치와 occlusal stability가 뛰어나고 청결 유지에 용이한 반면 가철성이기 때문에 환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점막지지이므로 위치적인 안정성과 침상에 관한 검사가 요구된다.

Implant overdenture 술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attachment는 bar와 clip으로 많은 임상가들이 bar를 선호하는 이유는 bar fixture를 상호 고정함으로써 힘이 나뉘지 않게 되고 저작력이 양측으로 분산되어 하나의 fixture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게 된다는 장점때문이다.

본 증례에서는 심하게 흡수된 하악 치조골을 임프란트로 수복하여 환자의 의치 안정성에 큰 성과를 얻은 세 가지 경우를 보고하는 바이다.